

“봉사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 상무2동 캠프지기이점숙씨

1만시간 이상 봉사...작년 광주자원봉사센터 봉사왕
코로나 시국 회원들과 마스크 만들어 몽골에 기부도

“봉사활동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활동을 멈추는 날은 제가 목숨을 다하는 날입니다.” 23일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상무2동 캠프지기 이점숙(69·사진)씨는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40대 초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씨는 벌써 1만 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해 지난해 광주자원봉사센터 봉사왕으로 선정됐다. 현재도 자신의 손길

이 필요한 곳이면 병원, 센터, 무료급식소 등 가지 않고 손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11년께부터는 언니가 사는 상무2동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씨의 언니인 이관숙씨도 7천 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했으며 ‘자매 봉사왕’을 꿈꾸며 함께 봉사를 다니고 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마스크를 걱정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상무2동 캠프지기 회원들과 함께 1년 가까이 많은



루 12시간씩 마스크를 만들었다. 총 3만 개가량 제작해 이 중 4천장 가량을 몽골에 보냈다. 이씨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평일 캠프지기 회원들과 상무2동을 돌아다니며 우유 팩, 캔, 플라스틱 등을 줍고 있다. 캔이나 깨진 유리병에 손을 찔리기도 여러 번이지만, 봉사활동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씨는 “몸에 냄새가 배서 식당을 가기 민망하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주민들로부터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힘도 생겨난다”며 “함께 하는 봉사의 즐거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평일에 상무2동에서, 주말에는 학생 독립기념관과 상록도서관에서 봉사하며 일주일을 오롯이 봉사에 쓰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주 서구지회 여성회장과 총무도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씨는 “봉사활동은 하면 할수록 중독이 되는 것 같다”며 “상무2동 소속 회원들 중 80대가 많아 나도 그때까지 건강관리를 잘해서 더 많은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숨을 다하거나, 몸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옆에 없지만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준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남구 진월동 지사협, ‘독서논술교육’ 협약

광주 남구 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전날 동 행정복지센터, ㈜대교 솔루니 광주 지점과 저소득층 자녀에게 연말까지 독서논술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획됐다. /주성학 기자



해남 황산파출소, 경로당 어르신 치안활동

해남경찰서 황산파출소는 23일 안전한 해남 만들기 일환으로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산파출소 직원들은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교통안전지팡이’를 나눠준 데 이어 보이오피싱 등 각종 범죄 예방 홍보를 벌였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 하당동새마을부녀회, 헌 옷 수거활동

목포시 하당동새마을부녀회가 자원 재 활용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헌옷 수거 활동’을 추진했다. 목포시 하당동새마을부녀회는 “최근 진행된 헌옷 수거에 새마을부녀회원 10여명이 참여해 안 입는 옷과 신발, 이불 등 100kg가량을 수거했으며 수거한 헌 옷은 헌 옷 경진대회에 활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수정 새마을부녀회장은 “성실히 헌 옷 수거에 임해준 부녀 회원과 동참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헌 옷 수거를 통해 이웃 사랑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자 하당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애쓰는 마음에 감사하며 봉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사·협력기관 실무자회의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23일 “광주기업봉사단협의회 회원사와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 교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업,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과 자원봉사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고려인 가족과 함께하는 감성캠핑 ▲플라스틱 병뚜껑 활용 벽화 제작 ▲전쟁난민 고려인 아이들 위한 학습 지원과 사회 적응 ▲영농철 농가일손

돕기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경제교육과 정서지원 멘토 활동 ▲기업과 공공기관의 다회용컵 사용제한 등 10여개 안건이 제안됐다. 임이엽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한 각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작은 아이디어라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성장과 광주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광주기업봉사단협의회 활동이 광주공동체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동신대-전남광역치매센터 ‘치매 연구’ 협약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22일 해인6관 2층 강의실에서 전남도광역치매센터와 ‘전남지역 치매 관리 및 지역사회 치매 분야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치매 관련 협동 연구와 공동 사업 ▲연구와 기술 인력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김다미 기자

지역 주민들의 치매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조지현 동신대 사회복지학과장은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촉식

영광경찰서는 23일 “전날 경찰서 대청마루에서 2023-2024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광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교통 관련 공무원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기존 위원들과 함께 ▲횡단보도 신설 또는 이설 ▲교통신호기 신설 또는 이설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규정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 허용 ▲기타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성준 영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도로 이용자가 편리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광주비엔날레-광주공항 ‘문화예술 발전’ 협약

광주비엔날레와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23일 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최근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윤상규 광주공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공항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비엔날레 성공과 지역 항공-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추진 ▲상호 홍보 채널 지원 등 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비엔날레의 도시’ 광주의 첫 관문인 광주공항과의 이번 협약은 광주가 문화관광의 도시이

자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양우 대표이사는 “광주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 미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수준 높은 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예술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기간에는 광주 시티투어버스가 운영돼 광주공항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농협 담양군지부 ‘조합장 당선자 교례회’ 개최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는 “최근 담양군 관내 11개 신임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조합장 당선자 교례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례회에는 이개호 국회의원, 이병노 담양군수,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격려했으며, 담양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정 현안을 상호 공유했다.

주요 농정현안은 담양군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농업인 실의 증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이다. 오정윤 담양군지부장은 “신임 조합장들이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경찰서, 보성향교서 교통안전교육

보성경찰서는 23일 “전날 보성향교를 방문, 유림 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수칙과 교령은 전자 면허반납제도, 안전띠·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봄철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2023년 새롭게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안내하고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보성 관내 최근 사망사고 사례 등을 영상으로 소개해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 야광지팡이, 파스, 마스크, 형광조끼, 안전모 등 다양한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부했다. 임진영 보성경찰서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후 적극 검토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보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